

문화도시 수원

제 16 호



좌담

우리 동네 수원의 가치와
꿈을 만들어가는동행공간

머물수록

2023 수원공공예술 프로젝트 - <멈추면 생동>
모든 것은 노래한다 - 공생 공락 축제

전문가 칼럼

인문 도시 수원에 대한 기억

문화도시 수원 10월 이모저모

수원은학교
로컬문화콘텐츠 직거래 장터 '수문장'
북수원 두드림 <Do Dream> 축제

우리 동네 수원의 가치와 꿈을 만들어가는 동행공간

문화도시 수원과 함께하는 '동행공간'은 지역주민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 주민과 지속가능한 인문 활동을 하는 거점 공간입니다.

문화공간을 처음 열었을 때 꿈꿨던 공간의 일상이 실현되고, 수원의 문화공간이 그 자체로 존중 받아 다채로운 공간의 일상들이 새로운 지역 문화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동행공간을 통해 지역주민, 예술인, 기획자 등 활동 주체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일상과 도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살피며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행공간을 운영하는 3인을 만나 우리 동네 수원의 가치와 꿈을 만들어가는 동행공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참석자

지태옥 대표(제이텔레콤 남문로데오점)

이명운 대표(소이블랩)

김수진 대표(이루다)

“같이 할까요? 동행공간”

지태옥 _____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 남문로데오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제이텔레콤입니다. 실버 세대나 취약 계층이 핸드폰이나 모바일에 무지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실버 세대들에게 모바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 _____ 안녕하세요. 레스(less)웨이스트를 지향하며 예쁘고 쓸모있는 제품을 만드는 비누공방 대표 소이블랩입니다. 동행공간 1기부터 함께 해 올해 3년차 동행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_____ 안녕하세요. 오목천에서 라탄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루다는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는 등나무줄기(라탄)와 물을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드는 친환경 라탄공예 작업실입니다.

동행공간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지태옥 _____ 실버 세대 분들이 모바일 교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영업을 하며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이익 관계가 없이 방문 하는 저희 동네의 실버 세대분들에게 간단한 모바일 교육의 시간과 또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자신만의 문화를 교육하는 이벤트를 갖길 원했고 마침 동행공간이라는 사업 공고를 발견하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운 _____ 환경을 지켜나가야 하는 건 분명 알겠는데, 혼자 하려니 방법을 모르겠고, 완벽한 제로웨이스트를 꿈꾸기에는 부담스럽고, 이런 생각들이 모여 “내가 가진 지식을 알려주고, 시민들이 직접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실천 정보를 받아 공유해 보자” 라는 생각을 계기로 3년전 동행공간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_____ 더 많은 분들과 작업 공간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동행공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탄공예 작업실 주변 환경이 아름다워서 이 공간을 수원시민

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등공예라는 생소한 공예를 널리 알리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행공간을 통해 수원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이명운 _____ 수원동행공간은 벌써 70개소로 동행공간의 개수가 꽤 많아졌고 활짝 열려있어요. 접근 방식이 꼭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더라도 각 동행공간 운영자들의 SNS, 문화도시 수원 홈페이지, 발간한 책자 등으로 동행공간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동행공간은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연결해 주는 곳이니 적극적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 해 주신다면 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시민분 들을 만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수원이라는 도시에 스며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쓸모 있는 문화공간으로 쓰이길 바랍니다.

김수진 _____ 생각보다 가까운 곳 집 앞 5분거리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집에서 심심하게 계시지 말고 집 앞으로 나오셔서 취미생활을 즐겨주세요.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수원의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가는 동행공간, 함께 무엇을 만들어 왔나요?”
동행공간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활동해오며 중요하게 생각하신 가치가 궁금합니다.

김수진 _____ 다른 성별,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수원시민이라는 공통점을 이용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등공예를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요즘 1인 가구가 늘면서 집에서 한마디도 안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귀한 시간을 내 방문해주신 만큼 새로운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지태옥 _____ 동행 공간을 하며 모바일이라는 하나의 매체를 통해 세대를 떠나 하나 되며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동행공간의 가장 큰 가치는 따로가 아니라 ‘서로’이며 ‘함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배로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동행 공간의 사업 명처럼 공간을 함께 하고 싶은 소중한 분과 동행해 보세요.

이명윤 _____ 시민들과 만나거나, 동행공간의 운영자분들과 만나며 그간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점, 생각지 못한 것들을 제시 해 주시기도 하고, 내 생각의 안목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며 계속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역시나 사람이고 서로의 연결, 관계의 형성이 참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제이텔레콤 남문로데오편점
주 소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93 1층
운영시간 월-토 11:00-18:00
인스타 @jtelecom1

제이텔레콤(남문로데오편점)은 동네의 실버세대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또 다른 문화를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활동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공간입니다.

“무엇을 완성하고 싶은가요?”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계신 동행공간 대표님,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미래에 그리고 싶은 청사진은 무엇인가요?

지태옥 _____ 저희의 동행공간인 제이텔레콤에서 시작 되어 넓은 공간으로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의 좋은 것들을 모바일 이라는 공간을 통해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윤 _____ 상업적인 비즈니스 공간으로 시작했지만, 기존 수원시민들과 더불어 언젠가는 타지에서 수원에 정착하게 된 분들을 위한 모임공간, 관계성이 전혀 없는 분들을 위한 연결공간 등등 제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이라는 도시에 스며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쓸모 있는 문화공간으로 쓰이길 바라봅니다.

김수진 _____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되었어요. 지나가다가 방문해서 근황도 물어보고 소통이 활발한 동네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행공간을 즐길 수 있는 ‘알쓸신잡’ 팁을 부탁드립니다.

이명윤 _____ 수원문화재단에서 매달 발간해주는 월간 문화도시 수원 소식지나, 동행공간 책자를 꼭꼭 챙겨보시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면 문화도시 수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은 우리동네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는 동행공간을 잘 알고 계시다가 그 공간을 소식통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수진 _____ 일단 고민하지 말고 참여하세요. 할까?, 말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하지 마시고 일단 참여해주세요. 많은 동행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아주 친절히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실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신청해주세요.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빠르게 마감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고우!

지태옥 _____ 즐거움은 하나보다 둘이 즐겁다고 소중한 사람과 공간을 함께 이용 하시면 기쁨이 두 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지 모든 분들이 금방 친해 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배로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동행공간의 사업 명처럼 공간을 함께 하고 싶은 소중한 분과 동행해 보세요.



소이블랩
주 소 수원시 영통구 광고호수공원로 277, B2 39호
운영시간 평일 9:30-17:30
저녁 및 주말 클래스 1:1 예약스케줄에 맞춰 운영
인스타 @soy_blab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마추는 욕실, 이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 레스웨이스트를 지향하는 비누공방 “소이블랩”입니다. 공방에서는 다양한 수제비누와 제로웨이스트클래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취향에 맞춘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동행공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김수진 _____ 동행공간을 널리 더 알려주세요. 동행공간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욱 활발하게 널리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 집 앞 5분거리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집 밖으로 나오셔서 취미생활을 즐겨주세요.

이명윤 _____ 시민들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즐거움을 전달하는 경쾌한 전달자가 되는 동행공간이 되도록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태옥 _____ 우리동네 실버 홍보단 이란 주제로 동행공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준비할 시간 조차 없이 사회의 한 귀퉁이로 밀려 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지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도 조금은 느리지만 동행공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버 세대들도 동행공간을 찾아나서기로 마음먹었다면, 실행에 옮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대와 나이를 초월해서 카페, 독립서점, 공방 등 일상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동행공간에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이루다
주 소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06번길 17, 상가동 102호
운영시간 매일 11:00-21:00
인스타 @e_rooda_rat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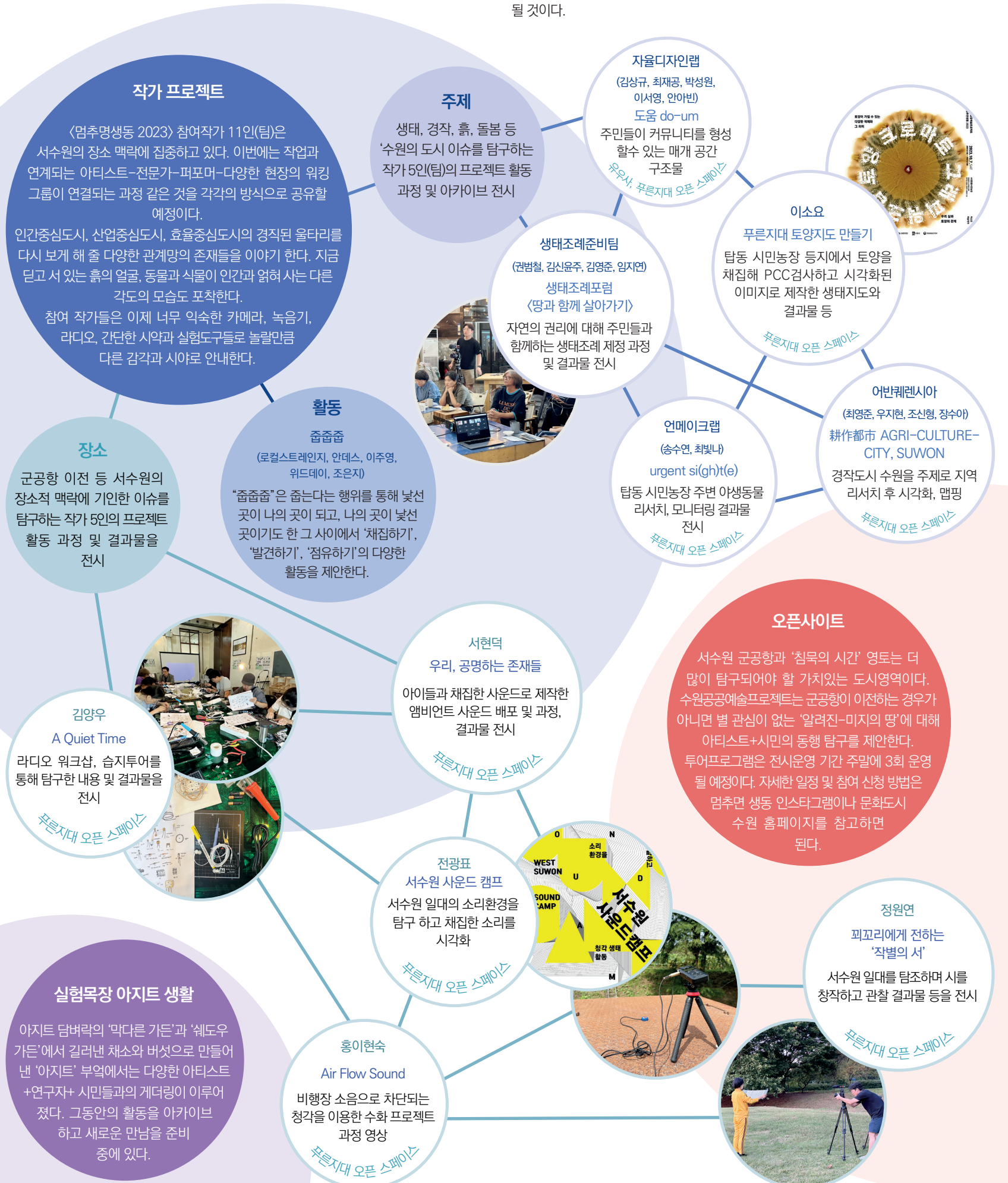
라탄작업실 이루다는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는 등나무 줄기(라탄)와 물을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드는 친환경 라탄공예 작업실입니다. 하루수업, 취미반, 강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편안함을 느끼고 싶을 때 누구든 방문해 라탄을 엮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2023 수원공공예술 프로젝트 <멈추면 생동>

시끄러운 침묵과 풍부한 피난처를 주목하자.

마침내 **‘멈추면 생동’**이다.

수원공공예술프로젝트 <멈추면 생동 2023> '풍부한 피난처'가 11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수원탑동시민농장 푸른시대창작센터 오픈스페이스와 유우사, 서수원 일대에서 진행된다. <멈추면 생동 2023>은 2022년에 이어 수원공군 비행장이 서수원의 도시구조와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계속 탐구한다. 작년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풍부한 피난처' 개념을 오해는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 본다. '풍부한' - '피난처'는 좀 모순되고 수동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너무 복잡하고 기능 중심적인 현대도시의 치밀한 구조와 질서 안에 부글거리는 혼돈은 임계치를 넘고 있다. 어쩌면 파국적인 상황 앞에서 애써 무시했던 다른 삶의 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시기이다. 비행기의 굉음이 만들어낸 엉뚱하고 흥미로운 장소 서수원은 다른 가능성들의 소중한 영토이다. '풍부한 피난처'에 주목한 이번 프로젝트는 활동과 전시를 통해 관심과 연결이 넓어지고 인간 외의 다양한 생명체들의 관계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노래한다.



문화도시 수원에서 시민이 함께 구성하고 7일간의 삶의 기쁨을 나누는

공생공락 (共生共樂) 축제



사람중심의 인문도시를 지향해온 문화도시 수원에서 시민이 함께 구성하는 삶의 축제인 '인문도시 시민축제'가 10.6(금)~10.12(수) 시민축제 사전프로그램과 10.13(금)~15(일) 본행사가 복합문화공간 111CM을 중심으로 수원 시내 곳곳에서 펼쳐졌다. 인문도시주간은 문화도시 수원이 추구해온 사람중심의 가치 위에서 일상에서 예술의 정신과 인문학적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시민축제다. 2023 인문도시주간은 지역의 시민활동가, 공부하는 시민, 동네책방이나 작은 도서관 운영자, 예술가, 기획자 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N개의 실행그룹'이 참여한다. 인문학 가치가 담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발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우리가 사는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문화도시 축제 모델로 문화적 삶의 태도로서 '인문 가치'를 즐겁게 공유하고 확산하는 즐거운 축제! 시민이 시민을 초대하는 축제! 인문도시주간을 즐겨보자.



★인문도시 포럼

수원 시민이 지향하는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 전문가 담론 작업과 시민이 실천하고 질문하는 인문도시 포럼은 생태인문도시 포럼과 기후미식 포럼, 기후포럼으로 구성된다. 생태인문도시 포럼은 생태시민, 생태경제, 생태살림이라는 주제로 환경도시를 넘어 생태도시로 가는 수원시민의 삶을 모색한다. 연구자들과 생태도시로의 철학, 삶의 양식, 방향성을 나누고, 사전활동에서 의제를 발굴하여 생태활동가들과 공론화하여 환경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기후포럼 '기후위기, 시민들의 일상기록'은 마을의 실천가들이 모여 기후 위기 의식을 가지고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적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형 포럼이다.



시민활동그룹의 주도적인 축제 참여 프로젝트인 N개의 프로젝트는 북콘서트를 통해 '건강한 돌봄', '연결된 고통', '서로가 서로에게' 3회차의 주제로 나의 건강을 좌우하는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행동하는 출발점을 살펴본다. 인문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적 가치의 다양한 모양들을 펼쳐내기 위한 시민의 도시는 <사사로운 초대>, 수원 시민들로 이루어진 인문학적 단체들의 다양한 행사인 칠보산 마을모임 <걷기명상 프로그램>, 지구사용공부방 <아파트의 나무들> 등 다양한 관심과 주제의 모임 속에서 더 깊어지고 확장하고 나누고 있는 시민이 시민을 만나고 접촉한다. 시민의 도시 '여기에 이슈' 전시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여서 놀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인문도시를 만들어 가는 여정을 전시한다. 이번 인문도시주간에는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을 기념하여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창작시를 공모하여 어린이들의 자율적인 표현의 중요함을 전달하기 위한 '어린이 창작 시' 발간 기념회 행사도 준비했다. 문화도시 수원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삶의 감각을 깨우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행사를 통해 시민이 주인공인 인문도시주간을 만들어간다.

문화도시 수원의 주요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마을, 지역, 생태가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에서 만나고 활동한다. '로컬문화콘텐츠 직거래 장터' <수문장>,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주제로 수원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축제 기획 및 운영 하는 <수원은 학교-수원 그린 레인저스 데이 (S. G. R. D)>,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동행공간> 등이 펼쳐진다. 한편 이번 행사는 수원 청년들의 문화도시 수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제작 및 공연 <아주대학교-아주의 수다>, 유학생들의 타향인 수원에서 살아가면서 느낀 점을 콘텐츠화 하여 전시 및 공연 <경희대학교-유학생들의 수원 생활 무한도전> 등 대학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시민이 모여 인문학적 가치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축제, 인문도시주간을 즐겨보자.



인문도시 시민축제

한눈으로 보는 인문도시주간

① 복합문화공간 111cm

- 인문도시 북토크 10. 13(금) ~ 10. 15(일)
- 책방데이(휴먼 라이브러리) 10. 13(금) ~ 10. 15(일)
- 책놀이터 10. 13(금) ~ 10. 15(일)
- 시민의 도시 여기에 이슈 (시민활동10展) 10. 14(토)
- 어린이 창작시집 출간기념회 10. 14(토)
- 생태인문도시 포럼 10. 14(토)
- <기후포럼> 기후위기, 시민들의 일상기록 10. 15(일)
- 수원 그린 레인저스 데이(S.G.R.D) 10. 14(토)
- 수문장 10. 14(토) ~ 10. 15(일)
- 아주의수다 10. 15(일)
- 유학생들의 수원 생활 무한도전 10. 15(일)

②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 영화로운 시네마(4회 운영) 10. 11(수) ~ 10. 13(금)



수원 곳곳

- ③ 딱다구리 책방
- ④ 오평
- ⑤ 마을살이정류장
- ⑥ 피아노1221
- 문수 좋은 날 ③④⑤⑥ 10. 11(수) ~13(금)
- ⑦ 칠보산
- 칠보산 산길을 '맨발걷기와 명상' 10. 6(금)
- ⑧ 가치가게
- 영통시민포럼 '오픈 정보' 10. 6(금)
- ⑨ 경기상상캠퍼스
- 지구사용공부방 '도시나무 생존기' 10. 10(화)
- ⑩ 우만동아지트 미지
- '삼삼오오대화' 10. 12(목)

인문 도시 수원에 대한 기억

글 _____강진갑 문학박사,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경기대 교수를 지냈다. 인문학자, 컬럼니스트로 저술 활동도 하고, 역사문화콘텐츠기획자로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수원에서 살고 있다. 2011년과 2014년에 '수원인문도시 조성 기본 계획' 연구를 하였고, 2015년에는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 준비위원회' 소위원장과 추진위원회 문화예술위원장으로 수원시 문화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였다.

수원 시민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7천 인의 시민 대화창'을 한다.

2015년 8월 15일 저녁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수원 제1야외 음악당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7천 인 시민 대화창'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시민들은 수원시립 교향악단 연주와 수원 시립공연단의 합창에 맞추어 '아침 이슬' '아름다운 강산' '우리의 소원'을 노래한 후, '애국가'를 합창하였다. 사전에 예행 연습하지 않았는데, 입을 모아 다 함께 부르는 대화창은 장관이었다. 이날 '7천 인 시민 대화창'은 계획한 인원 7천 명을 훨씬 넘긴, 1만 1천여 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부른 4곡은 광복 70주년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곡들이다. '아침이슬'은 70·80년대 불렀던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고 있어 남북 모두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이다. '아름다운 강산'은 "아름다운 이곳에서 자랑스러운 이곳에서 살리라"라는 가사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희망과 꿈을 노래하는 국민 애창곡이다. '애국가'는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이다.

'7천 인 시민 대화창'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수원 시민과 수원시가 함께 준비한 행사이다. 이 행사는 전년도 2014년 11월부터 준비되었다. 당시 행사 기획에 참여하였던 필자에게 수원문화재단 축제기획단장이 8월 15일 저녁 광복 70주년을 상징하는 7천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해서 '7천 인 시민 대화창'을 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7천 명'이라는 숫자에 부담이 느낀 많은 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행사를 결정하는 전체 회의에서 이 제안은 부결되어 채택되지 않았을 정도이다. 이 제안이 부결되자 축제기획 단장이 '7천 인 시민 대화창'이 가지는 행사 의미를 강한 어조 설명하였고, 그 결과 이 제안은 다시 채택되었다.

이후 '7천 인 시민 대화창'에 시민 참여를 요청하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이 캠페인에 학교와 종교, 시민, 문화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는 것은 시민의 자주성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참석자를 사전에 신청받고 이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기로 하였다.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행사를 기획할 때, 구청과 동 자치센터 별로 참여 인원을 할당하고 행정 조직을 통해 이 인원을 모으는 것이 흔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연예인을 출연시켜 시민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7천 인 시민 대화창'을 준비한 사람들은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홍보하되 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발동하여 시민을 동원하지 않는다. 연예인을 초청하지 않는다.

추진 과정에서 KBS가 같은 날 같은 시간 서울 삼암 월드컵 경기장에 10만 명의 시민을 모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대국민합창제 '나는 대한민국'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수 이승철과 국민의 피겨 영웅 김연아가 이끄는 대화창제 소식은 KBS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수원시 추진위원회는 '7천 인 시민 대화창' 날짜 변경도 논의하였으나, 계획대로 8월 15일 하기로 하였다.

당시에도 의문이었을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의문이다. 1만 1천 명이 넘는 수원 시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모였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어쩌면 당시 수원시가 추진한 인문도시 조성 사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인문학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까?

2010년 수원시가 수원시를 인문학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시민들은 물론 인문학자들조차도 궁금해 하였다. 인문학 중심도시가 뭐지? 교육부와 대학이 할 일을 수원시가 왜 하지? 도시를 인문학 캠퍼스로 만들려고 하나?

2010년 무렵 한국 사회는 심각한 모순과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한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시민들은 스스로 행복해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국내총생산 규모를 표시하는 GDP가 1993년 1인당 8,402달러이고, 2011년에는 1인당 2만 2,489달러로 2.7배 성장하였다. 2015년 한국 GDP 총액은 1조 4,351억 달러로 세계 11위이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이처럼 성장하였는데, 국민의 행복감이 늘어나지 않았다.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한국인의 수는 1993년에 52%였는데, 2011년에도 똑같은 52%이다. 놀랍게도 1%도 늘지 않았다. 경제는 성장하였고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 되었으나 한국인들의 행복도는 조금도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왜 그런가? 두 가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의 문제이다. 2010년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는 논문에서 "한국 사회에서 행복은 객관적인 외적 요건보다는 성격이나 행복에 대한 관점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이 설명"된다고 하였다.

같은 해 행복 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에서의 불행」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한국의 소득 수준이 세계에서 높은 편인데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하위 수준이어서 놀랐다고 하였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이 자신이 사는 한국 사회에 분노를 터트리고 있으며 풀이 죽어 있다고 하였다.

그는 그 이유를 한국 사회의 물질주의에서 찾았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면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삶에 대해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는데 인문학이 이바지할 수 있는가? 인문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는 사회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 준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인문학'이란 단어와의 연관어를 빅데이터 상으로 조사해보니 2008년에는 '지식'이 1위였고, '삶'이 42위였다. 그런데 불과 3년 뒤인 2012년에 '지식'은 2위로 밀려나고 '삶'이 1위로 올라선 것이다. 2009년 이후 한국인은 인문학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수원시가 인문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 것은 한국 사회의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인문학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고, 인문학이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수원 인문도시 사업의 성과

2011년 필자는 수원시로부터 수원 인문학 중심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요청을 받았다. 인문학 중심도시란 말은 개념

도 정립되지도 않은 생소한 개념이었기에, 연구진들은 20명이 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으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인문학 중심도시 방향을 인문학과 인문 정신으로 행복해지는 인문 도시로 설정하였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추진된 수원 인문 도시 프로젝트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삶에 대해 새로운 생각하게 해주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원시를 책 읽는 인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원학 강의를 개설하고 버스 정류장에 인문학 글판 만들기과 같은 도시인문학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2016년에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세계 인문학 포럼을 유치하여 수원시의 인문학 도시 경험을 세계 인문학자와 공유하였다. 포럼의 주제는 '희망의 인문학'이다. 이 포럼에서 팍팍한 세상에 인문학이 희망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이 모색되었다.

그리고 수원 시민이 인문학을 향유하게 하기 위해 수원시에 많은 문화 공간과 기관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 시립도서관이 8개에서 21개로 늘어났고, 평생학습관, 수원문화재단, 공연장 SK아트rium, 광고박물관, 아이파크미술관이 개관되었다. 시민에게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제공되었다. 수원시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수원 시민 800여 만 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한다. 그러나 이들 통계는 외부로 나타난 인문학 사업의 결과치이다.

실제 수원시의 인문도시 프로그램이 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알기가 어렵다.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변화도 잘 깨닫지 못하는데, 외부에서 어떻게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약간의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가 있다.

인문도시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후인 2014년 '수원'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연구를 하면서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시민들은 인문학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학문, 인간에 대한 사랑과 가치를 일깨워주는 학문,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사랑하게 만드는 학문, 예술의 가치와 이를 통한 삶의 존재적 가치를 느끼게 하는 학문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이는 수원시 인문도시 사업이 시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해 주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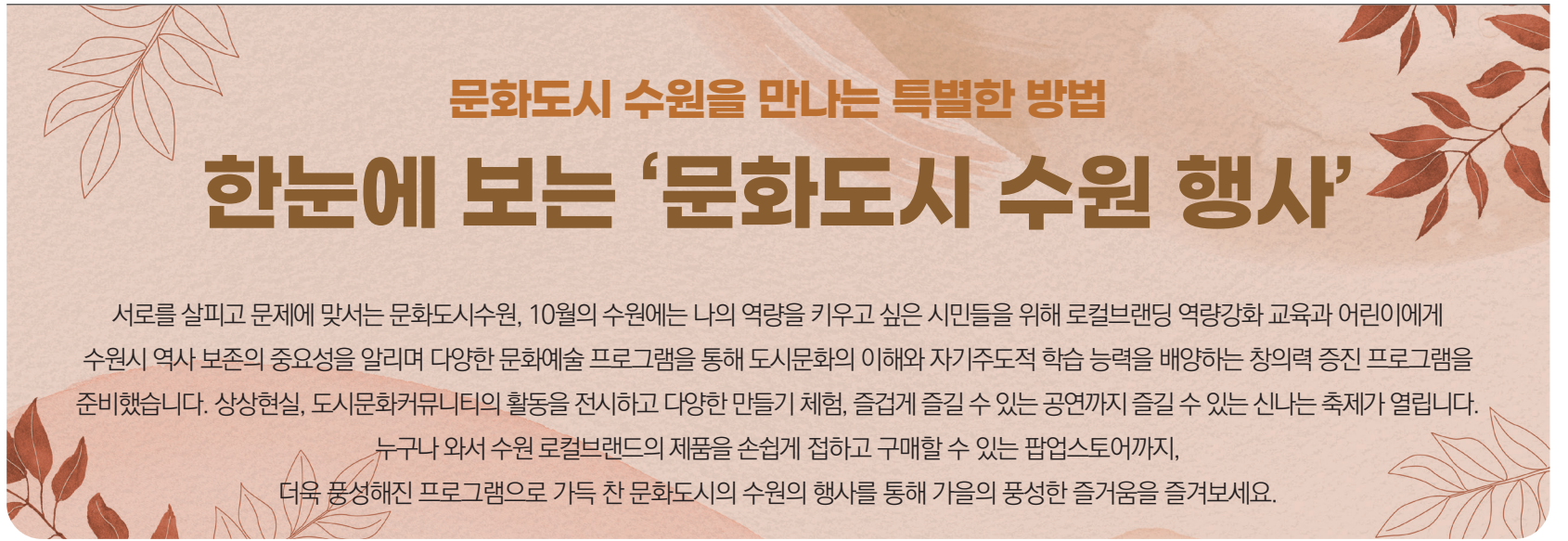
수원 인문도시가 수원 시민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다시 이야기를 되돌려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 되는 날 '7천 인의 시민 대화창'을 생각해 본다. 수원 시민이 자발성에 기초하여 1만 1천여 명이 모여 광복을 노래하였다. 수원 시민의 자발성과 자주성, 역사 의식이 돋보인 행사였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수원시에서 가능하였을까?

필자는 2011년부터 추진된 수원 인문도시 프로젝트가 수원 시민에게 어느 정도 변화를 주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21세기는 질문을 하는 시대이다. 질문이 정확하면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인문도시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아닐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

(이 글의 일부는 필자가 2021년『수원역사문화연구 8호』에 기고한「인문도시 수원의 성과와 과제」에서 일부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수원, 10월의 수원에는 나의 역량을 키우고 싶은 시민들을 위해 로컬브랜딩 역량강화 교육과 어린이에게 수원시 역사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문화의 이해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상상현실, 도시문화커뮤니티의 활동을 전시하고 다양한 만들기 체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축제가 열립니다. 누구나 와서 수원 로컬브랜드의 제품을 손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까지,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문화도시의 수원의 행사를 통해 가을의 풍성한 즐거움을 즐겨보세요.

수원은학교

'수원은학교'는 문화도시 수원을 이끌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주체를 발굴·육성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자, 도시 전체를 일상화된 배움과 도전, 창조의 공간으로 만드는 중장기 문화 형성 프로젝트입니다. '수원은학교'는 지역 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며 문화예술 관계자와 시민활동 모임의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고자 합니다. 나의 역량을 키우고 싶은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수원은학교 로컬브랜딩 역량강화교육은 소규모 기업의 기회와 성장 방법, 로컬콘텐츠의 이해와 사례, 환경을 생각하는 로컬브랜딩, 1인 창업가를 위한 브랜딩 마케팅, 마을과 함께하는 로컬브랜딩,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브랜딩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나의 역량을 키우고 싶은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23. 10. 19. ~ 2023. 11. 30.
매주 목요일 13:30 ~ 16:30
장소 수원문화재단 지하1층 영상실(팔달구 행궁로 11)
문의 (재)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시민문화팀 (031-290-3544)



어린이에게 수원시 역사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문화의 이해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수원의 역사를 보존하고 도시를 건설해보고 싶은 어린이 모여라! 창의문화도시의 어린이 대원이 되어 지하도시와 물의도시를 건설하고 어린이 대원들이 새롭게 구성한 창의문화도시를 전시합니다.

교육 2023. 10. 21. ~ 2023. 11. 11.
 매주 토요일 14:00 ~ 16:00(4회)
준비 2023. 11.12. 일요일 14:00 ~ 16:00(1회)
전시 2023. 11. 24. ~ 11. 26. 3일간 운영
 ※ 수료식 2023. 11. 25. 토요일
장소 지혜샘어린이도서관 2층 어울림터(교육), 푸른지대창작센터 오픈스페이스(전시)

로컬문화콘텐츠 직거래 장터 '수문장'

수문장은 수원형 문화직거래 장터의 약칭으로, 지역의 청년 예술가와 문화창작자의 작품 판로 확장 및 확장기반 형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직거래 장터입니다.



수문장은 노보텔 엠버서더 수원과 협업하여 호텔 1층 로비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수문장 브랜드 한 곳을 소개하는 팝업스토어를 진행합니다. 매주 주말, 수원의 특색있는 수문장 브랜드를 만나보세요.

기간 2023. 10월 ~ 12월 매주 주말 (토, 일)
장소 노보텔 엠버서더 수원 로비

북수원 두드림 <Do Dream!> 축제

북수원 특화사업 '상상현실 커뮤니티' 및 생활권내 다양한 커뮤니티를 발굴하는 도시문화커뮤니티의 사업에 참여한 활동자 간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권역 중심의 커뮤니티가 직접 만들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상상현실, 도시문화커뮤니티의 활동을 전시하고 다양한 만들기 체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연까지! Do Dream 축제로 오시면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일시 2023. 11. 18.(토) ~ 19.(일) / 13:00 ~ 18:00
장소 복합문화공간 111CM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195)

지역에서 활동중인 청년 예술가를 소개하고, 예술 작품의 전시와 판매를 통해 예술품 유통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아트페어 형태의 수문장을 개최합니다. 수문장 아트페어는 20여명의 청년예술가와 함께하며, 롯데몰 수원 1층 로비에서 6일간 진행됩니다. 2023 수문장아트페어는 현대미술의 어려움을 넘어,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시각적 요소를 바탕으로 작품을 4가지로 분류하여 전시를 진행합니다. 또한, 원작의 포스터 굿즈 판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참여자 권양현, 김기태, 김모니카, 김민지, 김재선, 김혜란, 김효정, 단수민, 문혜주, 민주미, 랭보, 박빛나, 서병관, 실리비(김민정), 이미연, 이태강, 이훈상, 지니, 최봄이, 홍미애 (총20명)
프로그램 아트페어, 포트폴리움, 도스트투어, 예술특강
기간 2023. 10. 24.(화) ~ 10. 29.(일) 10:30 ~ 22:00
장소 롯데몰 수원 1층 로비

<11월 참여 브랜드> 스토리블록 @storyblock_edu

레고 등 블록을 바탕으로 수원화성 등 지역의 전통문화를 콘텐츠로 개발하는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블록을 통해 표현하고 교육적 효과가 있는 블록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일 2023. 10. 28.(토) ~ 29.(일), 11. 4.(토) ~ 5.(일)

현아들리에

10년동안 한지공예와 가족공예의 연구개발을 해온 작가의 이름을 걸고 만든 브랜드 '현아들리에' 누구도 따라할수 없는, 평범하지않고 고급스러움과 고풍스러움을 만들어 내는 공예인으로서 자부심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진행일 2023. 11. 11.(토) ~ 12.(일), 11. 18. ~ 19.(일)



수원시미디어센터 2023년 4분기 미디어교육

수원시미디어센터에서는 시민의 미디어기본권을 강화하고 보편적 미디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월별 미디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 장비 사용법부터 키네마스터, 파이널 컷을 이용한 영상 편집교육까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기간 2023. 11월~12월(4분기)

장소 수원시미디어센터

모집기간 2023. 10. 17.(화) 11:00 ~ 교육별 개강 전까지

모집방법 수원시미디어센터 누리집 온라인 접수

※ 상기 교육 일정 및 세부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처음 만나는 iMAC 파이널컷프로 2023. 11. 1.(수)~11. 24.(금)	영화 사운드 분석 2023. 11. 3.(금)~11. 24.(금)	개라지밴드로 나만의 음악 만들기 2023. 11. 25.(토)~12. 16.(토)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편집 끝! (키네마스터 활용) 2023. 11. 2.(목)~11. 14.(화)	미리캔버스로 온라인 브랜딩 2023. 11. 21.(화)~11. 30.(목)
미러리스 카메라 A to Z (1,2기) 2023. 11. 18.(토)10:00~13:00(1기) 11. 22.(수)19:00~22:00(2기)	스마트폰 집벌 A to Z 2023. 11. 25.(토)10:00~13:00(1기) 11. 29.(수)19:00~22:00(2기)	이미지와 시 활용 2023. 11. 4.(토)10:00~13:00	<포토샵 없이도 된다~?!> 하루만에 배우는 속성 피그마 2023. 11. 18.(토) 10:00~13:00(1기) 11. 24.(금) 19:00~22:00(2기)	<AUTO는 그만~!> 하루만에 배우는 속성 수동 촬영 2023. 11. 25.(토)10:00~13:00(1기) 12. 1.(금)19:00~22:00(2기)

2023년 화서사랑채 주말 체험 프로그램

체험 기간 2023. 8. 12.(토) ~ 11. 18.(토) 기간 중 매주 토요일 ※ 9. 30.(토) 추석연휴 제외 시간 14:00~14:50, 15:00~15:50 / 1일 2회 운영 장소 화서사랑채 교육동 체험강좌 전통문화 9강좌- 어린이 국악, 가야금, 해금, 소금, 민요장구, 시조창, 한국무용, 판소리, 피리 체험료 성인 4,000원, 미성인 2,000원 ※온라인 접수 후 카드 결제 체험정원 강좌별 6~10명	신청 신청기간 10, 11월 체험 : 9. 22.(금) 09:00 ~ 각 체험일 1일 전 17:00까지 신청방법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카드 결제 온라인 접수 결제방법 카드 결제 (수강료 결제로 최종 접수 완료) ※ 상황에 따라 일자별 과목명, 체험내용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화서사랑채에서는 수원화성과 행궁동 일원을 방문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통문화 주말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국악, 가야금, 해금, 소금, 민요장구, 시조창, 한국무용, 판소리, 피리 등 전통문화 9강좌를 배우고 체험 할 수 있습니다.

해금의 구조와 소리내기, "아리랑" 연주 2023. 10. 21.(토)	궁중무복식에 화관을 쓰고 손에 긴한삼을 끼고 추는 춤 배우기 2023. 10. 28.(토)	판소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남도소리 배워보기 2023. 11. 4.(토)	탈 만들기, 탈춤 장단과 탈춤 배워보기 2023. 11. 11.(토)	피리의 구조와 운지법을 이해하고 "아리랑" 연주해 보기 2023. 11. 18.(토)
---	--	---	--	---

문화도시 수원 카카오톡 채널 OPEN!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문화도시 수원'을 검색하세요!

문화도시 수원 당근 공공프로필 생성!
 당근 어플에서 문화도시 수원 '단골맺기' 누르고 소식 받아보세요~

문화도시 수원 인스타그램
 QR 스캔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GO!

나눔의 손으로 수원문화예술의 싹을 틔워주세요
 문화예술기부 프로젝트 싹ssac은 수원문화재단에서 모금하고 운영하는 기부 프로젝트입니다.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수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아름답고 가치 있는 특권 '기부'로 문화예술관광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월간 문화도시 수원을 보신 소감, 응원 메시지를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이야기는 월간 문화도시 수원에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 등 소정의 사례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monthllyswcc@gmail.com
 내용 독자후기 한마디, 성함, 사시는 곳(OO구 OO동), 휴대폰 번호

*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월간 문화도시 수원 발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필자의 글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